

창의적 사고 능력 평가

(문제지)

학년도	2016 학년도
원	원
학과(전공)	과(전공)
수험번호	
이름	

※감독관 확인	
---------	--

창의적 사고능력 평가 시험

(연극원 / 무용원)

○ 문제지와 답안지(OMR 답안지와 주관식 답안지)를 확인하고 수험번호, 지원학과, 지원전공, 이름을 정확히 기입하시오.

○ 주관식 문제는 주관식 답안지에, 객관식 문제는 OMR 답안지에 기입하시오.(문제의 번호와 답안의 번호가 일치하도록 확인할 것)

【1~4, 주관식 1】 아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교수 모든 언어는, 잘 알아두세요. 죽을 때까지 잊지 말고……

학생 네, 선생님. 죽을 때까지요…… 그럼요……

교수 그리고 이것 역시 근본 원칙인데, **㉠모든 언어는 결국 말일 뿐입니다.** 즉 무슨 뜻이나 하면 언어의 구성요소는 음성 또는……

학생 음소……

교수 맞아요. 하지만 자신의 지식을 나열하진 마세요. 그냥 잘 들으세요.

학생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교수 음성은 날개로 날고 있는 상태에서 포착돼야 합니다. 아니면 귀머거리의 귀로 떨어지고 말죠. 따라서 발음을 하려면, 가능한 한 목과 턱을 높이 쳐들고, 발끝으로 서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학생 네, 선생님.

교수 조용. 가만있어요. 말 끊지 말고……

학생 이가 아파요.

(나)

하녀 (빈정대듯) 그래, 학생이 맘에 드세요? 수업을 잘 듣던가요?

교수 (칼을 등 뒤로 감추며) 네, 수업은 다 했어요…… 그런데…… 학생이…… 그냥 있네요…… 안가고요……

하녀 (냉혹하게) 그렇군요……

교수 (가볍게 떨면서) 나 아네요…… 나 아니라고요…… 아줌마…… 아네요…… 정말…… 나 아네요. 정말이요……

하녀 그럼 누구죠? 누구냐고요? 전가요?

교수 잘 모르겠지만…… 설마……

하녀 아님 고양이인가요?

교수 어찌면요…… 잘 모르겠지만……

하녀 오늘 벌써 마흔 번째예요! ……매일 이러네요. 매일이요. 창피하지도 않아요. 그 나이에? …… 그러다 병나세요. 하긴, 이젠 학생도 없을걸요. 다행이죠.

교수 (화를 내며) 내 탓이 아네요. 학생이 공부를 안 하려 그랬어요. 말도 안 듣고요. 나쁜 학생이었다고요. 공부도 안 하려고 하는.

하녀 거짓말! ……

왼쪽 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린다.

하녀 네, 나가요.

하녀가 문 쪽으로 간다. 두 번째 초인종 소리가 들린다.

하녀 (방백) 되게 급한 아가씨로군. (큰 소리로) 기다려요. (왼쪽으로 가서 문을 연다.) 안녕하세요? 새로 온 학생이죠?

(다)

교수 자, 따라 해요. ‘식칼’…… ‘식칼’…… ‘식칼’……

학생 목구멍이…… 아파요. 식…… 아…… 어깨가…… 가슴이…… 식칼……

교수 ‘식칼’…… ‘식칼’…… ‘식칼’……

학생 엉덩이가…… 식칼…… 허벅지가…… 식……

교수 정확하게…… ‘식칼’…… ‘식칼’……

학생 식칼…… 목구멍이……

교수 ‘식칼’…… ‘식칼’……

학생 식칼…… 어깨가…… 팔이, 가슴이, 엉덩이가…… 식칼…… 식칼……

교수 그래요…… 잘했어요. 이제……

학생 식칼…… 가슴이…… 배가……

교수 (목소리가 달라지며) 조심해…… 유리창 깨면 안 돼…… 식칼로 죽여……

학생 (희미한 목소리로) 네, 네…… 식칼로 죽여요?

교수 (대단히 커다란 동작으로 식칼을 휘둘러 단번에 학생을 찔러 죽이며) 아악! 받아라!

(라)

학생 아, 이가 아프다고요.

교수 계속합니다. 그리고 역시 알겠지만, 그건 프랑스어에서도 안 변했죠. 라틴어, 이탈리아어, 사르다나팔어, 스라다나팔리어, 루마니아어, 신스페인어, 스페인어에서도 안 변하고, 심지어 동양어에서도, ‘프롱’, ‘프롱티스피스’, ‘에프롱페’는 그대로 같은 단어예요. 이 모든 언어에서, 어근도, 접미사도, 접두사도 같다는 말입니다. 모든 단어가 다 그래요.

학생 그 단어들의 뜻이 모든 언어에서 다 같은가요? 이가 아파요.

교수 그럼요. 다를 리가 있나요? 어쨌든 모든 언어에서, 그 단어뿐 아니라, 상상 가능한 모든 단어가, 의미도 같고, 구성도 같고, 음성 구조도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개념은 유일한 하나의 단어와 그 동의어로만 표현되거든요. 모든 나라에서요. 그러니 치통 애긴 그만해요.

학생 이가 아파요. 네, 정말이요.

교수 네, 계속합니다. 계속하자고요..... 예를 들어 ‘우리 할머니의 장미는 아시아인이었던 우리 할아버지처럼 노랗다.’ 이걸 프랑스어로 어떻게 말하죠?

학생 이가, 이가, 이가 아파요.

교수 계속합니다. 계속해요. 대답을 해요.

(마)

교수 그럼 앉으실까요?거기..... 그리고 크게 거북하지 않으시면, 제가 마주 앉아도 될까요?

학생 그럼요. 얼른이요.

교수 감사합니다. (둘은 객석을 옆으로 한 채 식탁에 마주 앉는다.) 자, 책하고 공책은 있죠?

학생 (가방에서 책과 공책을 꺼내며) 그럼요, 선생님. 다 챙겨 왔어요.

교수 네, 좋습니다. 자, 그럼, 펜찮으시면..... 시작해도 될까요?

학생 그럼요. 선생님 맘이죠.

교수 제 맘이요?(눈빛이 번득하다 이내 사라진다. 어떤 몸짓을 하려다 그것도 자제한다.) 아뇨, 아뇨. 정반대죠. 저야 봉사자에 불과한걸요.

1. 위 작품, 다섯 개의 장면은 이야기의 진행 순서와는 상관없이 배열되어 있다.

위 작품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장 적절하게 배치한 것을 고르시오. (3점)

- ① 마 - 가 - 라 - 다 - 나
- ② 나 - 마 - 가 - 라 - 다

- ③ 다 - 나 - 마 - 가 - 라
- ④ 다 - 나 - 마 - 라 - 가
- ⑤ 마 - 라 - 가 - 다 - 나

2. 위의 작품에 대한 이해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인간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지극히 합리적이라 믿으며 문화의 축적과 의사소통의 도구로 삼지만, 실제로 그것은 대단히 비논리적이고 불합리해서 서로간의 소통이 불가능한 오해의 연속일 뿐이다.
- ② 강렬하고도 직접적인 방식으로 인간의 부조리한 상황이나 모습을 제시할 뿐이지 그것에 대해 특정한 반응을 유도하지도 않고, 어떤 대책을 암시하거나 충고하지도 않는다.
- ③ 위와 같은 작품은 대체로 인간 존재를 하찮거나 부조리한 것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표면상으로는 비논리적인 극적 기교를 사용한다.
- ④ 등장인물들은 비사실적이고, 인물에 관한 설명이 배제되어 있으며, 이야기 구성이 극의 시작과 똑같이 끝나는 순환적 구조를 사용한다.
- ⑤ 인간의 잠재의식이 그 어떤 현실적 상황보다 더욱 냉정하게 현실을 인식한다고 믿으며, 꿈의 세계와 인식 가능한 사건들을 환상적인 해프닝으로 펼쳐 무대화한다.

3. 아래 보기 중에서 위 글 (가)의 ㉠의 의미를 가장 적절하게 나타낸 것은? (3점)

- ① “월승이 똥구멍은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백두산~ 뻗어 내려~ 반도 삼천리~”
- ② “일주일은 칠일이고, 일 월 화 수 목 금 토의 순서로 되어 있다. 천장은 위에 있고 바닥은 밑에 있으며, 스미스씨가 스미스씨 부인의 남편이고, 스미스 부인은 스미스씨의 부인이다.”
- ③ “산중에 무력일하여 철가는 줄 몰랐더니 꽃피어 춘절이요, 잎 돌아 하절이라. 오동낙엽에 추절이요, 저 건너 창송녹중에 백설이 펴날리니 이 아니 동절이냐? 나도 본시 팔도강산 오입장이로 산간에 묻혔더니 풍류 소리 반겨듣고 염불에 뜻이 없어 이런 풍류 소리에 어디 한 번 놀고 가보자.”
- ④ “오늘 나에게서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서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골짜기들은 메워지고, 모든 언덕과 산들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펴지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⑤ “오빠, 가지마세요. 이대로 헤어지면 우린 또 언제 만
난답니까? 오빠, 가지마세요. 조금만 조금만 더 있다
가세요. 우린 반세기 만에 만났어요. 오빠, 오빠, 가
지마세요.”

4. 위의 작품을 무대에 상연하고자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3점)

① 교수와 학생, 그리고 하녀의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서
배우들의 과장되고 익살스런 연기가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

학생 살해 장면에서는 교수의 분노를 보여주기 위해
교수는 더욱 과장된 연기를 하는 것이 이 작품의 주
제를 나타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장치이다.

② 이 연극은 매우 정교한 심리극이다. 장면 전환이 없
는 하나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연극이기에 배우들
의 섬세한 심리를 보여주기 위해 회전무대는 필수적
이다.

회전무대가 힘들다면 원형무대를 사용하여 여러 방
면에 앉은 관객들에게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를 골고
루 보여주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 작품은 어떠한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을 필요
도 없다.

의상이나 분장, 조명 등, 그 외의 극적장치 역시 극
장의 상황에 맞춰 공연을 올리는 것이 작가의 작품
취지와 이 연극이 지닌 동시대성을 올바르게 나타내
는 것이다.

④ 학생과 교수 이 둘의 대립을 조명의 명암 대립과 음
향의 높낮이를 통해 보여 주어야 하는 것이 이 작품
의 포인트다.

오늘날 교육은 무너지고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는
허물어졌다. 이 작품은 무너져 가는 오늘날의 교육
현실을 통렬히 고발한다.

⑤ 이 연극은 학교나 병원, 그리고 극도의 정신적 문제
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매우 유익한 심리치료 연극
이다.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환자를 자극하
지 않고 가족들에게 위안이 되는 목적극인 것이다.

전 세계 여러 곳에서 공연을 할 때마다 관할 의사
선생님이 병원의 여건과 환자의 상태에 맞춰 공연하
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다.

주관식 1. 위 작품의 제목으로 가장 적합한 단어를 본문
안에서 찾아 적으시오. (3점)

답: _____

【5~7】 아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모든 인식과 마찬가지로 과학은 자신의 편향된
관점으로부터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없다. 과학은 사실
에 기초한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 니체는 말한다. 오로지 해석들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중략) 우리의 삶에 외적으로 부여되는 의미
같은 것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의미를 스스로 창
조할 수 있다. 선과 악조차도 노예들의 도덕이 만들어
낸 구분이다. ‘악’이라는 단어는 불필요하다. 오로지 ‘나
쁘다’라는 단어만 의미가 있으며, ‘나쁘다’는 것은 생명
에 적대적인 것, 강한 승리의 삶이 확장되는 것에 적대
적인 것을 의미한다.

(나) 철학자가 어딘가에서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발
견한 진리에서 출발하여 전체 역사학을 건설하는 사태
가 - 마치 그 자신의 인류에 대한 개념에 따라 역사가
진행된 것처럼 - 벌어지고 있다. 그는 이제 실제 일어
난 진행에 견주어 자신의 명제가 옳은지 그른지를 거짓
없이 증명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일어난 일마저 자신
의 개념에 그대로 끼워 맞춘다. 물론 그는 역사가 자신
의 개념에 맞아떨어질 때만 그 역사의 진리를 알아차린
다. 철학자가 역사학을 건설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식
이다. 만약 이런 행위가 옳다고 한다면, 역사학은 일순
간에 모든 독자성을 잃고 말 것이다. 곧 역사학은 오로
지 철학의 ()에 의해서 지배될 것이다.

5. (나)의 글에서 밑줄 친 문장이 의미하는 것은? (3점)

- ① 역사에서 철학의 명제가 필수적이다.
- ② 역사의 진리는 알기 어렵다.
- ③ 자신의 개념은 개인 철학이다.
- ④ 역사를 철학적 진리에 따라 해석한다.
- ⑤ 역사학은 실제 일어난 사건에 맞추는 것이다.

6. 위 두 글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다음 (가)글
과 (나)글의 주장을 서술한 것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 글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기에 결국 의미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 ② (나) 글은 철학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고 주장한다.
- ③ (가) 글은 과학조차 자신의 관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
다고 주장한다.
- ④ (나) 글은 역사의 진리는 실증적이며 독자적이라고
주장한다.

⑤ (가) 글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고 해석만이 있다고 주장한다.

7. (나)의 글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점)

- ① 명제
- ② 개념
- ③ 권력
- ④ 관점
- ⑤ 의미

[8~9] 아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행복’은 ‘마음을 비우는’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이 ‘마음 비우기’는 깊고 냉철한 이성적 생각 끝에 도달할 수 있으며, 운명적으로 주어진 일을 더욱더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자세이다.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삶과 죽음의 순환을 배우고 준비한다면 오히려 더 만족스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연을 거슬리지 않는 삶이란, 자연의 질서에서 ‘나’를 끌어가는 거스를 수 없는 질서를 발견하고, 나 자신을 또한 자연의 일부로 보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연을 매우 중요시하는 이들에게서 오늘날의 환경운동과 일맥상통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스토아 철학의 운명론은 자포자기에서 나오는 수동적 삶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사람은 이 거대한 자연의 질서가 파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들은 이러한 헌신을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전 인류에까지 넓힐 것을 주장한다. 나 개인은 나에게만 속하지 않고 친구, 부모 그리고 인류와 우주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를 잘 파악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며, 이 세계가 만들어진 목적에 맞는 것이라고 말한다.

(나) 현대사회의 웰빙의 요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 세계로부터 근원적으로 분리된 개아(個我)로서의 나의 웰빙이다. 장자(莊子)의 웰빙관은 이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의 웰빙관은 세계와 상통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인 나의 웰빙이다. 장자사상에 나타난 웰빙관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장자사상은 세상 어떤 것에도 구애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의 경지를 제시하고 있다. 부와 명예, 권력에 대한 가치부여는 인간의 삶을 구속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인간은 비로소 참된 자유와 행복을 얻게 된다. 둘째, 장자는 외적인 성취를 지향하고 획득한 것을 즐기는 삶이 아니라 내적인 자기발견을 지향하고 ‘참된 자기’의 자연

을 즐기는 삶을 주창함으로써, 새로운 웰빙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소요유(逍遙遊)에서 삶의 목적은 삶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이다. 셋째, 장자는 낙도(樂道)하는 삶으로서의 새로운 웰빙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도(道)는 없는 곳이 없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 자연의 이치에 따르는 삶, 이것이 바로 낙도하는 삶의 의미이다.

8. (가)의 밑줄 친 의미와 관련이 없는 것은? (3점)

- ① 부와 명예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난다.
- ② 운명적으로 주어진 일을 더욱더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자세이다.
- ③ 세계로부터 근원적으로 분리된 개아(個我)이다.
- ④ 내적인 자기발견을 지향한다.
- ⑤ 자연의 질서에서 ‘나’를 끌어가는 질서를 발견한다.

9. 오늘날의 환경운동은 스토아철학이나 장자의 웰빙관과 유사성이 있다. 그 유사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나 자신을 또한 자연의 일부로 보는 것이다.
- ② 자연의 이치에 따르는 삶이 바로 낙도하는 삶이다.
- ③ 자연의 질서가 파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 ④ 궁극적으로 나의 웰빙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며, 이 세계가 만들어진 목적에 맞는 것이다.
- ⑤ 내적인 자기발견을 지향하고 ‘참된 자기’를 즐기는 삶을 산다.

[10~11, 주관식 2] 아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선조 후기의 실학이라 하면, 사람들은 으레 경세치용, 이용후생, 실사구시의 모토를 상기하게 되고, 아울러 그 구호 밑에서 이룩한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의 변화만을 생각한다. (중략) 말하자면 실학에는 사회과학적 사상은 있어도 근본적인 철학 사상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명한 실학자들은 한결같이 당시의 ‘성리학적 경학관’에 불만을 품고, 이를 극복하려 노력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수광, 유흥원, 박세당, 안정복, 박지원, 정약용, 김정희 등 저명한 실학자들을 살펴보면, 모두가 종래의 성리학적 경학관을 버려야겠다는 의식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마침내 종래 행하여져 온 학문 방법의 전환을 꾀했던 것이다.

이들이 꾀한 방법론적 전환이 반드시 서로 일치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1) 백과

사전식의 박학의 방법 2)하학이상달식(下學而上達式) 실제성 중시(원시유학 정신회복)의 방법 3)훈고식(訓誥式) 고증학의 방법이 그것이다. 이 방법론적 전환의 각성이 바로 경세치용, 이용후생, 실사구시의 모토와 연결됨은 물론이다.

이 방법론적 전환의 각성 중에서도 원시유학 정신을 빙자하여 '실제성 중시'를 강조하는 것이 다른 어느 것보다도 가장 두드러지는 사실이 매우 주목할 만하다. 실학은 성리학에 비하여 '수기(修己)'보다 '치인(治人)'에 주력하는 학문이라는 판단을 가능케 한다. 뿐만 아니라 실제성 추구의 정신이 공리, 공론시 되는 비생산적 형이상학을 때로는 배제하고, 배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체로 이(理)보다 기(氣)에 치중하는 이른바 '주기설의 철학'을 형성하게 된다.

성리학에서는 일종의 이(理)의 실재성을 믿거나, 천(天)을 의인화하여 우주자연과 내가 서로 합일할 수 있는 일체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른바 물아일체관(物我一體觀)을 주장한다. 실학자들은 이를 부인함은 물론이다. 우주, 자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길은 마음이 아닌 기의 통로뿐임을 지적하고, 자연과 인간은 필연의 상태로 존재하느냐, 자율적 능력을 발휘하며 생활하느냐 하는 점으로 구별됨을 역설한다. 이들은 물아이분관(物我二分觀)을 가지면서, 한 걸음 나아가 일종의 물리적 자연관의 각성에 이르렀던 것이다.

정치, 사회의 측면으로 볼 때, 실학자들은 그 이전의 어느 유학자들보다 위민(爲民), 민본(民本)의 개혁설을 낸 것으로 유명하다. 이제까지 실학에는 사회과학적인 경제설만 있는 듯이 여겨지게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특히 정약용이 탕론(蕩論)을 통해 맹자의 방벌사상을 새롭게 고취하는 것이라든가, 유형원이 '노비 폐지'의 설을 주장하는 것은 실학이 자랑하는 위민, 민본사상의 핵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민권 및 인권의 신장의식을 따지고 보면, 개인의 주체적 인격에 대한 각성과 그 평등의식의 산물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10. 위 글의 내용 중 실학의 믿음이 **아닌** 것은? (3점)

- ① 이용후생
- ② 원시유학 정신
- ③ 물아이분관(物我二分觀)
- ④ 수기(修己)
- ⑤ 치인(治人)

11. 실학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3점)

- ① 실학에는 사회과학적 사상과 근본적인 철학 사상이 있었다.

- ② 실학자들은 일종의 물리적 자연관의 각성에 이르렀다.
- ③ 개인 주체적 인격을 인지하였다.
- ④ 공리적 형이상학을 믿었다.
- ⑤ 위민(爲民)·민본(民本)의 개혁설을 내었다.

주관식 2. 위의 밑줄 친 부분의 글을 읽고 아래 문장에서 괄호에 적당한 단어를 쓰시오. (3점)

밑줄 친 부분에서 설명하는 실학의 측면은, 개인의 자유 평등의식을 기저로 서구 시민사회의 기초가 된 근대() 사상과 유사한 경향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답: _____

【12~15, 주관식 3~5】 다음의 A와 B는 두 편의 소설 가운데 일부이다. 다음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할머니와 나는 한 달 전에 헤어졌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도 나를 점자처럼 손끝으로 읽어내려갈 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우리는 서로의 유년기와 노년기를 함께 보냈다. 그것은 할머니와 내가 아주 오랫동안 같이 살았다는 뜻이다. 헤어지기 전에 할머니는 서로 편지는 쓰지 말자고 했다. 여름이 가면 다시 돌아올 거야, 할머니. 나는 할머니 이마에 내 이마를 갖다 붙였다. 할머니의 이마는 차가웠고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만약 내가 지나치게 사색적이고 몽환적이며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다면 그건 아마 할머니를 닮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한다. 불행, 혹은 기형적인 유전자가 어머니에게서 딸로 전해지는 것처럼 말이다. 죽은 사람들로부터 나는 목소리를 듣는다. 나는 할머니에게 짧은 유서를 남겼다. 부탁이니까 제발 울지 마, 할머니. 슬픔은 영원히 남는 거야.

눈을 뜨자 다시 나는 병원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할머니가 내 옆에 앉아, 무뚝뚝한 **(※)**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럴 수는 없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모두 죽었어, 할머니.

나는 화가 난 할머니가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울먹거렸다.

너는 부모를 잃었지만 난 스무 살 때 낳은 첫

아들을 잃어버린 거야. 그리고 그건 벌써 이십년 전이다.

할머니는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의사는 할머니에게, 나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과 따뜻한 날씨와 상담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그러자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만 해도 임상 치료사로 일했던 나의 할머니가 의사에게 말했다.

그만 집으로 돌아가게 해줘요.

(※) 할머니는 밤마다 말 잔등을 쓰다듬듯, 돌아누운 내 등을 쓰다듬었다. 거봐 할머니, 할머니도 아직 나를 그때, 내가 다섯 살이었을 때 취급을 하고 있잖아. **㉠ 아버지의 자살은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달의 인력처럼 나를 따라다녀. 말해봐, 할머니도 그렇지?**

(가)

내가 회복되자 할머니는 나를 커다란 책상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앉게 했다. 할머니가 나에게 아버지 얼굴을 그려보라고 했다. 나는 손바닥으로 무릎을 문지르며 탄전을 피우다가 **㉡ 흰 종이에 포도알 한 개를 으갠 것 같은 까만 점 하나를 그렸다. 그 점을 파란색과 흰색 크레용으로 문질렀다.** 몇 주 동안 나는 이런 그림을 반복해서 그렸고 할머니는 내가 그린 그림을 언제나 처음처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내가 떠날 때까지 할머니는 나에게 많은 것을 숨기고 싶어 했지만 **㉢ 나와 내 그림을 번갈아가며 바라보던 그 눈길, 마치 을/를 보는 듯한 눈빛은 감추지 못했다.**

할머니는 이번에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나는 함구증 환자처럼 줄곧 입을 다물고 있었다. 할머니는 다시 나에게 종지와 연필을 내밀었다. 나는 종이 한가운데 작은 원 하나를 그렸다. 원을 가운데 두고 세모와 네모를 하나씩 더 그려넣었다. 이게 나랑 아빠랑 할머니야. (㉣) 할머니는 처음에 그 원을 '나의 자화상'으로 이해했다. 이번엔 할머니가 틀렸다.

뇌에 물이 차오르는 병을 알아차린 순간부터 할머니는 서서히 나를 가능한 가장 멀리 나를 떼어놓고 싶었던 것일까. 자신의 죽음으로부터, 나를. 할머니의 부음

을 듣는 순간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나는 이제 고아가 되었다, 라는 것이었다. 집을 떠난 것이 후회가 되는 순간이 있기도 하다. 죽음을 앞둔 할머니 곁을 지켜야 할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나였어야 했다. 할머니는 원치 않았고 나를 멀리 보냈다. 나는 그것이 할머니가 나에게 새로운 문 하나를 준 거라고 생각한다. 할머니는 나에게, **㉤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문이 있는데 닫힌 문 하나를 너무 오랫동안 바라보느라 새로 열린 문을 보지 못하는 거라고** 타이르듯 말했다. 그게 우리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나)

내가 원과 삼각형, 사각형을 그린 그림을 내밀었을 때 할머니가 나를 바라보던 눈빛이 생각난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할머니가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던 그림을 도로 집어 맨 처음에 그린 원 하나만 남기곤 그 옆에 있던 세모와 네모를 지우개로 쓱쓱 지웠다. 그리고 처음에 그렸던 동그라미 옆에 나란히 제각각 크기가 다른 세 개의 원을 더 그렸다. 두 번째 원은 노란색 크레파스로 칠했고 세 번째 원은 마블 느낌이 나도록 초록색과 보라색을 뒤섞어 칠했다. 마지막 원에는 중간에 둥근 띠를 그렸다. 자, 봐 할머니. 나를 지구라고 치자. 나는 맨 처음에 연필로 그린 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게 나야. 그 옆에 이 노란색은 화성이겠지. 그 옆은 목성일 테고. 그 옆에 띠를 두른 건 토성. 지구랑 가장 가깝게 붙어 있는 이 노란색 화성이 바로 할머니야. 나는 모처럼 내 생각을 제대로 표현한 것 같아 약간 우쭐해지기까지 했다. **㉥ 화성 안으로 눈물 한방울이 툭 떨어졌다.**

㉦

당신의 언니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당부할 필요가 없었다. 당신이 그 비밀을 언제까지나, 부모는 물론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고 끝까지 짊어질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럴 수 있을 만큼 온 힘을 다해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알면서도 당신의 언니는 그날 이후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았다. 당신과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고, 눈조차 제대로 맞추려 하지 않았다. 그 후 수년간 당신은 그녀의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해 애썼지만, 어떤 노력도 부질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한순간 그녀에게서 돌아섰다. 당신은 당신의 언니를 사랑하지 않으려 애썼다. 낯선 여자를 바라보듯 그녀를 보려 애썼다. 그녀가 웃을 때면 장난꾸러기처럼 쩡그러지는 콧잔등을 다정하게 바라보지 않으려 애썼다. 유년 시절을

함께 보낸 혈육을 향해서만 느낄 수 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친숙한 감정을 당신의 내부에서 깨우지 않기 위해 애썼다.

*

당신의 언니가 투병하던 마지막 삼 개월 동안 당신은 그녀를 거의 만나지 못했다. 그녀가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삼십칠 킬로그램까지 몸무게가 줄었고,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고통을 호소했다. 아파, 아파, 라고 아이처럼 가느다랗게 비명을 질렀다. 아빠, 나 좀 살려줘, 라고 그녀가 애원하자 무뚝뚝한 아버지의 턱이 덜덜 떨렸다. 덩치 큰 형부는 뒤돌아서서 울었다. 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감싸 쥘 채 아가, 아가, 라고 속삭였다. 당신은 자책을 멈추지 못했다. 당신의 존재가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을 멈추지 못했다. 언니, 라고 마침내 떨리는 입술을 열고 말하려 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다.

심장이 좋지 않은 당신의 아버지는 영결식만 치른 뒤 고모 내외와 함께 먼저 귀가했고, 형부의 부축을 받고 뒷자리까지 올라온 어머니는 하관이 끝날 때까지 수차례 흠바닥에 주저앉았다. 어머니를 부축해 내려오다가 당신은 호되게 발목을 빼었고, 신음을 삼켰고, 이따위의 일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게 했다.

*

당신이 의사에게 그 상처들을 보여주리라는 것을 당신은 지금 모른다. 하루만 더 지켜보죠, 라고 의사가 말하리라는 것을 모른다. 인대, 근육, 신경이 다 모여 있는 곳이라서, 가능하면 수술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당신은 왼쪽 발목의 구멍을 다시 들여다보리라는 것을 모른다. 죽어 있는 회백색의 피부 조직을 보며, 드레싱을 할 때 왼쪽은 아팠지만 오른쪽은 오히려 아프지 않았던 걸 기억하리라는 것을 모른다. 아마 신경이 죽어버린 모양이지, 생각하리라는 것을 모른다. 수술을 하면 이 죽은 부분을 도려내는 거겠지. 이따위, 라고 생각하며 당신이 마른 눈을 깜박이리라는 것을 모른다.

*

당신이 지금 당신의 자전거를 보고 있는 것은, 그것이 당신에게 기쁨을 주었던 물건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여름 한낮에도 이 길을 자전거로 달리곤 했다. 습기 차고 무더운 바람의 덩어리 속을 자전거로 뚫고 지나갔다. 당신은 살아 있었다. 생생하게 살아서 그 무더운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미친 듯이, 아무 까닭도 없이 소리를 지르고 싶은 기쁨을 느꼈다. 그러니까 지난 팔월, 당신

의 언니가 친정의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형부의 차에 실려 병원을 오가고 있었을 때 당신은 그렇게 미칠 듯한 기쁨을 느꼈다.

그 기쁨을 기억하게 될까 봐 당신은 두려워하고 있다.

.....더 추워지기 전에, 그 전에 꼭 한번 자전거를 탄다면 죄일까?

당신은 안장에 몸을 싣는다. 페달에 오른발을 얹는다. 왼발 끝으로 땅을 구른다. 비탈진 골목길을 미끄러져 가기 시작한다. 퇴색된 잎들이 아직 붙어 있는 활엽수들 아래를 당신은 빠르게 달린다. 당신이 기쁨을 두려워한 것은 불필요한 일이었다. 당신은 기쁨을 느끼지 않는다.

*

당신은 모른다.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 어머니를 활달하게 설득하고 돌아온 일요일 저녁, 천천히 골목에 내리는 눈을 더 보지 않기 위해 당신이 커튼으로 창을 가리리라는 것을 모른다. 철후같이 어두워진 방 가운데 당신이 웅크리고 앉아 맞을 밤을 모른다. 오래전에 당신이 첫 월급을 타서 선물했던 스카프를 그녀가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말없이 돌려주었던 순간을, 당신이 끈덕지게 되돌려 기억하게 되리라는 것을 모른다. 당신이 그녀에게서 영원히 돌아서리라 결심했던 순간. 그녀의 표정 없는 눈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결코 읽을 수 없었던 그 순간.

*

그 모든 것을 아직 알지 못한 채 지금 당신은 갈대밭 가장자리에 누워 있다. 자전거는 천변의 바위 위로 나동그라져 세차게 헛바퀴가 돌고 있다. 허공에서 떨어지는 순간 당신은 본능적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손과 팔꿈치의 피부가 벗겨진 게 분명하다. 땅에 부딪친 어깨와 골반이 빠근하게 아파온다.

((C)) 라고 중얼거리며 당신은 축축한 흙 위에 누워 있다. 흙이 들어간 오른쪽 눈이 쓰라리다. 이 모든 통각들이 너무 허약하다고, 당신은 생각한다. 지금 당신이 겪는 어떤 것으로부터도 회복되지 않게 해달라고, 차가운 흙이 더 차가워져 얼굴과 온몸이 딱딱하게 얼어붙게 해달라고, 제발 다시 이곳에서 몸을 일으키지 않게 해달라고, 당신은 누구를 향한 것도 아닌 기도를 입속으로 중얼거리고, 또 중얼거린다.

12. 다음 중 **A**와 **B**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3점)

- ① **A**의 ‘나’는 할머니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느꼈다.
- ② **A**의 할머니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며 ‘나’를 멀리 떠나보냈다.
- ③ **A**의 할머니는 ‘나’와 함께 살던 시절 그림 그리기를 통해 상담치료를 시도했다.
- ④ **B**의 ‘당신’은 어려서부터 언니를 마음 속 깊이 증오했다.
- ⑤ **B**의 ‘당신’은 언니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동안 살아있는 기쁨을 느꼈다는 데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13. **A**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내가 오랫동안 할머니를 괴롭혀온 탓에 할머니는 분노로 눈이 먼 사람처럼 굳다.
- ② ㉡: 아버지가 자살해버렸다는 것이 내게는 깊은 상처로 남았지만, 할머니는 이 상처를 이해할 수 없다.
- ③ ㉢: 나에게 아버지는 다정하고 포근한 추억만을 떠올리게 한다.
- ④ ㉣: 할머니는 내가 죽음에 집착하기를 멈추고 나의 삶과 욕망을 찾아 나서기를 바랐다.
- ⑤ ㉤: 할머니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기에 내 표현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14. **A**의 ‘나’는 어려서부터 읽기와 사색 그리고 글쓰기에 골몰해왔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는 자신만의 책을 쓰기로 결심한다. 서술자의 일기장에 인용된 시들 가운데 (※) 시기의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3점)

- ① 구두를 신고 그는 잠이 들었다.// 나는 흙이 묻은// 그의 커다란/ 검은 두 귀를// 벗겨주었다.
- ② 사라지는 시를 쓰고 싶다/ 눈길을 건다가 돌아보면 사라진 발자국 같은/ 봄비에 발끝을 내려다보면 떠나려간 꽃잎 같은/ 전복되는 차 안에서 붕 떠오른 시인의 말 같은/ 그런 시/ 사라지는 시/ 쓰다가 내가 사라지는 시
- ③ 깊은 밤 하늘 위로/ 숨죽이며 다가오는 샷대 소리./ 보이지 않는 허공에서/ 죽음이 나를 겨누고 있다./ 어린 꿈들이 풀숲으로 잠복한다./ 풀잎이 일시에 흔들리며/ 끈끈한 액체를 분비한다./ 별들이 하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한다./ 쟁! 죽음이 나를 향해 발사한다./ 두 귀로 넘쳐오는 사물의 파편들./ 어둠의 아가리가 잠시 너풀거리고/ 보라! 까마귀 살점처럼 붉은 달이/ 허공을 흔들고 있다.

- ④ 일찌기 나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 마른 빵에 핀 곰팡이/ 벽에다 누고 또 눈 지린 오줌 자국/ 아직도 구더기에 뒤덮인 천년 전에 죽은 시체.// 아무 부모도 나를 키워 주지 않았다/ 쥐구멍에서 잠들고 벼룩의 간을 내먹고/ 아무 데서나 하염없이 죽어 가면서/ 일찌기 나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 떨어지는 유성처럼 우리가/ 잠시 스쳐갈 때 그러므로./ 나를 안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너를모른다 나는너를모른다./ 너당신 그대, 행복/ 너, 당신, 그대, 사랑// 내가 살아 있다는 것./ 그것은 영원한 루머에 지나지 않는다.
- ⑤ 몸속에 소녀가 들어서는 때가 있다/ 애 들어서듯이 내 몸에 입덧을 치는/ 소녀가 있다 어둠 속에서/ 그런 날엔 암내도 없이 내 몸은 향기롭다/ 내 몸에 소녀가 들어서는 날을 어떻게 알고/ 아버지는 어김없이 나를 찾아온다/ 십이 년 전 죽은 젊은 얼굴을 하고/ 소녀를 찾아온다 그러고는 운다/ 소녀는 아버지의 눈물을 처음 본다/ 소녀도 운다 말간 몸뚱어리를 물처럼/ 서로의 몸에 끼얹어주는 풍경/ 눈물이 내 몸속에 양수처럼 차오른다/ 내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시간 / 소녀도 아버지도 빠져나가고 나면/ 내 몸은 누운 채로 보양계 굳어 있다

주관식 3. **A**의 (가) ㉣ “나와 내 그림을 번갈아가며 바라보던 그 눈길, 마치 을/를 보는 듯한 눈빛은 감추지 못했다.”에서 할머니가 ‘나’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고려하여 할머니의 눈빛을 비유로써 표현하는 독창적인 구절로 빈칸을 채우시오. (5점)

※ 띄어쓰기를 포함해 30자 이내로 쓸 것
예시) 높이 한번 올라가보지도 못하고 터져버리는 불꽃

주관식 4. A의 B에는 '나'가 그린 그림에 대해 묘사하는 부분이 지워져 있다. 아래의 【보기】를 읽고 지워진 B의 내용을 유추해서 '나'가 그린 그림을 그리시오. (5점)

【보기】

- (나)에서 묘사된 그림으로 미뤄볼 때, (가)에서 '나'가 그리려고 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다.
- (가)에서 할머니는 '나'가 그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 자신이라고 착각했다. 그것은 손녀를 안타깝게 여긴 할머니가 보기에 '나'는 자살한 아빠와 엄격한 할머니 양쪽으로부터 상처 입은 소녀이기 때문이다. '나'는 양쪽으로부터 상처 입은 사람을 그리긴 했지만, 그것이 '나' 자신은 아니었다.

【답: 그림판】



주관식 5. B의 C에 들어갈 말을 B 본문에서 찾아 아래의 초성을 활용하여 한 단어를 쓰시오. (3점)

○	ㅍ	○
---	---	---

답: _____

15. B를 읽고 '상처'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할 때, 이 글의 주제로 다음 중 B의 전체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은? (3점)

- ① 우리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입히는 존재가 다름 아닌 우리와 가장 친밀한 가족일 수 있다.
- ② 어떤 상처도 인간의 영혼을 완전히 훼손시킬 수 없으며 인간은 결국 그 상처를 극복해낼 수 있다.
- ③ 상처는 대개의 경우 심리적인 회로에서 발생하므로 마음을 고쳐먹는 것만으로도 상처는 치유할 수 있다.

- ④ 살아가면서 상처를 입는 것을 피할 수 없지만 그 상처보다 더 커다란 기쁨을 발견해낼 때 상처는 치유될 수 있다.
- ⑤ 우리는 때로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상처입기를 원하거나 상처가 낫지 않기를 바라며 내심으로 그 상처를 가지고 속죄할 수 있기를 바란다.

【16~19】 다음의 시와 소설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작아작 크고 작은 두 마리의 염소가 캐비지를 먹고 있다.
 푹푹 걸음과 울음소리가 더 재미있다.
 인과 속으로 열심히 따라가고 있다.
 나 같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녀석들을 죽이지 않겠다.

(나)

나비가 벌레였던 기억을 날개에 얹고서 **㉠무덤**을 향해 날아갔다 누워 있던 과실의 썩은 부위에서 저도 모르게 포식의 향연을 벌였던 기억 하나, 주둥이에 아프게 남아 있었다 부패 식당 안내 지도가 그 편편한 날개에는 대칭으로 새겨져 있었다 **㉡문갑의 경철**이 된 지 팔백 년, 네 마리의 나비가 편안하게 수문장으로 내생을 살고 있다

말매미가

팔딱대던 날개를 접었다 수액을 빨고 나면 입을 한번 닦고 나면 큰 호흡을 하고 나면 살갓이 아프도록 울음을 울었다 지극하게 통곡한 이후에는 짝을 불러 지독한 사랑을 나누었다 그리고는 육신을 버렸다 그것 또한 수백 년 전, 두 마리의 말매미가 **㉢서랍장 손잡이**가 되어 알뜰하게 저승을 살고 있다

보름달이

그럴 때는 문짝 안에서 진경산수와 **㉣십장생**을 비춘다 흐르는 물이거나

사슴이거나
 모란이거나
 바위이거나
 죽림이거나

모두 한통속이 되어
 사람이 아니기를
 꿈꾸었다 한다

사람 하나

경대 앞에 앉아서 분첩을 열어 얼굴에 바른다 주근깨

를 지우고 기미를 지우고 흉터를 지운다 눈썹을 그리고 눈동자를 그리고 입술을 그려서 여자를 만든다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 비슷한 것으로 살다가 사람이 아니어지는 이 세월, 어리석어도 좋고 저속해도 좋고 잔인해도 좋으며, 잠시나마 사람인 것으로 환치시키려고 **㊠붉은 연필**을 들고 안달을 한다 온 세상 경첩들이 한꺼번에 덜컹대는 한밤중에

(다)

프란츠를 처음 본 곳은 베를린 자연사박물관이었다. 그곳에는 어떤 박물관에서도 구경할 수 없었던 거대한 공룡뼈대가 있었다. 높이가 12미터에 길이가 23미터나 되는 브라키오사우루스였다. 내가 ‘그’라고 불렀던 그것은 마치 사원 안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둥들로 장식된 홀 한가운데, 둥근 유리 지붕 아래에 고상하게 서서 그를 받드는 여사제인 나를 내려다보며 빙긋 웃고 있었다. 나는 매일 아침 고요한 기도로 그에게 바치는 예배를 시작했다. 삼십 초나 일 분 정도 그의 앞에 서서 그의 아름다운 눈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러면서 그의 뼈대가 아직 오십 톤의 살로 덮여 있었을 때 우리가 만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텐다구루 근처에서 1억 5천만 년 전 어느 날 아침 그가 먹잇감을 찾고 있었을 때 우리가 만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아침 그가 내 옆에 서 있었다. 다른 때는 나만 내려다보던 브라키오사우루스가 그날은 우리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빙긋 웃고 있었다. 프란츠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잊히지 않는 말을 했다. “아름다운 동물이군요.”

갑자기 피부에 와 닿은 통증이 뽕뽕 끊는 뜨거운 물 때문인지 얼음처럼 차가운 물 때문인지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는 것처럼, 나는 그 순간 내게 일어난 일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이 낮설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공룡뼈대와 나만의 말없는 대화를 두고 나를 조롱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목소리가 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의 것인지, 나처럼 1억 5천만 년을 뛰어넘어 브라키오사우루스의 1톤 무게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듣고 썩어 없어진 살을 되살아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의 것인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부드러운 프란츠의 목소리, 그리고 그의 작은 담회색 눈 속에 나타나는 방향 없는 진지함. 브라키오사우루스 앞에서 드리는 나의 아침 예배 때문에 나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든 다음 내가 대답했다. “그렇죠, 아름다운 동물이죠.”

그 이후로 나는 이천 번, 아니 더 자주 이 순간을 체험했다. 그보다 훨씬 더 자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타일렀는데도 어쩔 수가 없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이 순간이 그것을 계속 체험하려는 제어할 수 없는 나의 욕망으로 인해 그 마력을 잃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러나 박물관의 유리로 된 둥근 천장 아래 프란츠의 곁에 서서 그에게 “그렇죠, 아름다운 동물이죠”라고 대답하도록 나 자신에게 허용할 때면 언제나 그때처럼 아름다운 음악이 크게 울려 퍼졌다. 빗처럼 유리 천장을 뚫고 떨어지는 것 같은 음악이 홀 전체의 구석 구석에서 메아리치며 브라키오사우루스의 뼈대를 떨게 만든다. “하느님께 찬송과 영광을!” 천사들의 목소리가 그렇게 노래하고, 그리고 프란츠가 미소를 짓는다.

*

프란츠의 아내는 남편과 함께 바로 지난 주말에 박물관과 브라키오사우루스를 구경했다고, 그 거대한 동물이 텐다구루에 살아 있었을 모습을 상상하자 자신도 남편도 경건한 마음이 들더라고 말했다. 그런데 텐다구루 맞지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 더 마시겠냐고 묻는 눈빛으로 찻주전자를 살짝 들었다.

네, 내가 말했고 그녀가 나에게 차를 따랐다. 네, 텐다구루였지요.

프란츠가 작은 금발의 아내와 함께 나의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다. 세상의 어떤 장소들이 프란츠와 그의 아내의 것이었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브라키오사우루스의 작은 머리 아래의 그 1제곱미터는 내 것, 오직 나만의 것이었다.

프란츠의 아내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 미소 안에서 그녀의 승리의 기쁨 외에 다른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이 미소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우리가, 내 남편과 내가 당신 자리에 서 있었는데,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그녀를 때리고 싶다는 제어하기 힘든 욕구에 사로잡혔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어 하며 놀라고 그녀의 턱이 떨리며 울음을 터뜨리는 것을 보고 싶었다. 그녀는 그렇게 미소 짓는 것을 그만두어야 했다. 내가 그녀를 정말로 때리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 대신 나는 어떤 얘기를 했을 것이다. 아마 그녀에게 ‘내 남편’이라는 어법이 얼마나 가소로운지 깨우쳐주고 차라리 ‘우리 남편’이라고 말하라고 제안했을 것이다. 내가 프란츠를 사랑하고 프란츠도 나를 사랑한다고 간단하게 얘기했을 것이다. 그녀가 프란츠의 배우자로 선택되었던 것은 그저 운명의 오류였을 뿐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녀를 브라키오사우루스 아래로 데려갔던 것은 그곳에서 작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그가 나를 발견했던 나의 자리에서 그녀와 작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미소를 짓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놀라거나 절망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한 마

디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고 물 한 컵을 가지고 돌아와 내게 내밀었다. 그리고 택시를 불러주어야 하느냐, 아니면 지금 상태로 직접 차를 운전해서 갈 수 있다고 믿어도 되겠느냐 물었다. 그 말은 무례하게 들리지 않았고, 나는 다시 그녀를 때리고 싶은 욕구를 느꼈다. 당신은 괴물이야. 나는 그렇게 말하고 그 집에서 나왔다.

며칠 뒤 프란츠가 내 집으로 왔다. 프란츠는 딱 한 문장만을 말했다. “왜 그랬어?” 백 번이나 그 한 문장을 말했다. 아마 그에게 내가 무슨 대답인가 했을 것이다. 어쩌면 대답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진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나중에, 침대 위에서 몽롱한 안정이 내게 찾아왔다. 나는 원숭이처럼 팔과 다리로 프란츠를 꼭 껴안았다. 잠시 내 몸에 털이 자라난 것 같은 좋은 느낌이 들었다. 촘촘하고 짧은 짐승털이 내 몸과 내 얼굴을 뒤덮었다. 나는 프란츠의 어깨와 목 사이 움푹한 곳에 나의 몽툰한 짐승코를 파묻었다. 프란츠는 내 호흡의 그늘 안에 숨고 싶은 것처럼 그 안에서 낮게 숨 쉬었다. 우리는 그렇게 말없이 오랫동안 누워 있었다. 나는 이 시간 속에서 죽고 싶었다. 프란츠도 비슷한 것을 느꼈음에 틀림없다. 그가 파올로와 프란체스카 이야기를 했다. 베르길리우스가 단테를 사랑의 죄인들을 위한 지옥을 통과해 데려갈 때 파올로와 프란체스카의 고통 때문에 단테는 정신을 잃는다. 그들은 영겁의 세월을 거친 돌풍에 쫓기고 부딪히며 지옥을 통해 날아다녀야 하지. 프란츠가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를 놓아주지 않아. 지옥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아.

㉔짐승들은 지옥에 가지 않아. 내가 말했다.

16.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의 화자는 육식주의에 대한 저항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의 곤충들은 ‘경첩’이나 ‘서랍장 손잡이’가 되어 내생에 들고 싶어했다.
- ③ (다)의 ‘나’는 브라키오사우르스에 매혹되어 있다.
- ④ (다)의 ‘나’는 프란츠와 처음 만난 순간을 너무 자주 회상하는 것이 그 순간의 마력을 훼손할까봐 걱정했으면서도 회상하기를 멈출 수 없었다.
- ⑤ (다)의 프란츠는 자신과 나의 관계를 파올로와 프란체스카의 ‘사랑의 죄’를 빗대어 이해하고 있다.

17. (나)의 ㉑~㉔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3점)

- ① ㉑ 무덤
- ② ㉒ 문갑의 경첩
- ③ ㉓ 서랍장 손잡이
- ④ ㉔ 십장생
- ⑤ ㉕ 붉은 연필

18. (다)의 ㉔짐승들은 지옥에 가지 않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프란츠와 이별하는 것이야말로 ‘나’에게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
- ② 파올로와 프란체스카처럼 아름다운 커플이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은 단테의 거짓말이다.
- ③ 세상 사람들이 비난할만한 일을 저질렀으므로 ‘나’와 프란츠는 다음 생에 짐승으로 태어날 것이다.
- ④ ‘나’와 프란츠는 신성한 혼인서약을 파괴한 죄로 지옥에 떨어지겠지만 그 지옥에는 프란츠의 아내가 없을 것이다.
- ⑤ 브라키오사우루스와 동질감을 느끼며 인간의 의무를 잊어버린 ‘나’와 프란츠는 ‘짐승’에 해당하기 때문에 죄지은 인간을 위한 지옥에 갈 수 없다.

19. 아래는 (가), (나), (다)의 서술자들 사이의 대화이다. 【보기】 중 이들의 대화로 적절한 것을 모두 찾아 고른 것은? (3점)

【보기】

- ㉑ (가): “양배추를 씹어 먹는 염소를 본 적이 있어? 그 걸음걸이는 또 울음소리를 어떻게. 염소는 인간에게는 없는 어떤 특별함을 갖고 있어.”
- ㉒ (다): “나는 그걸 1억 5천만 년 전에 지구를 지배했던 공룡에게서 느껴.”
- ㉓ (나): “그래. 그런 존재들에 비하면 인간의 삶은 어딘가 불품없고 부족해.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것들은 다음 생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을 거야.”
- ㉔ (가): “그래서 내가 쫓는 것도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염소야.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건 가축으로 기르는 염소가 아니라, 인간적인 것보다 더 매혹적인 어떤 짐승의 이미지지. 나는 그 이미지를 내 마음 속에서 절대로 지우지 않을 거야.”
- ㉕ (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 사람의 삶이라는 게 어리석거나 저속하거나 잔인한 것이

라 해도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만이 그 안에서 다정하고 고귀하고 지혜로운 어떤 것도 찾아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되기를 바랄 수도 있는 거지.”

- ① a
- ② a, b
- ③ c, d
- ④ a, b, c
- ⑤ a, b, c, d, e

【20~21, 주관식 6~7】 다음 글 (가), (나), (다)를 읽고 묻는 말에 답하시오.

(가)

첫 번째는 독서(讀書)다.

옛사람은 책을 어떻게 읽었을까? 입으로 읽고, 눈으로 읽고, 손으로 읽었다. 독서는 입으로 소리 내서 가락을 맞춰 읽는 것이다. 예전에는 책은 반드시 소리 내서 읽어야 하는 것으로 알았다. 소리를 내서 읽으면 좋은 점이 참 많다.

두 번째는 간서(看書)다.

눈으로 읽는 것이다. 앞서 우암 송시열의 글에 "창밖고 고요한데, 주립참고 책을 본다"라는 글이 있었다. 배고플 때 책을 읽으면 책 읽는 소리가 더 낭랑하다. 하지만 깊은 밤중에 생각에 골몰히 잠겨 있을 때는 소리는 멎고 눈으로만 읽는다.

세 번째는 초서(鈔書)다.

초(鈔)라는 한자는 베킨다는 뜻이다. 책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을 베껴가며 손으로 읽는 것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가장 역점을 두어 강조했던 독서법이다. 초서의 방법을 제대로만 익힌다면 열흘에 100권의 책도 문제없이 해치울 수 있다고 말했다.

네 번째는 교서(敎書)를 꼽았다.

교서는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아 교정해가며 읽는 것이다. 읽다가 궁금하거나 의문이 생기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관련 자료를 뒤져서 내용을 확인한다. 잘못된 부분이 나오면 이를 바로잡고 여백에 메모를 남긴다.

다섯 번째는 평서(評書)다.

평서는 교서보다 좀 더 적극적인 독서활동이다. 평서는 책을 읽고 나서 책의 인상적인 부분이나 책 전체에 대한 감상과 평을 남기는 일이다. 책은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달라진다. 사람의 기억은 잠깐 만에 사라져버린다. 그러니까 책을 읽고 나서는 읽고 난 소감을 적어둘 필요가 있다.

여섯 번째는 저서(著書)다.

독서가 깊어지면 남의 책을 읽는 데 그치지 않고 제 생각을 펼쳐 보이고 싶어진다. 저서는 글쓰기다. 이제까지는 남의 글을 읽기만 했는데 많이 읽고 자주 생각하다보니 나도 할 말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조리 있고 설득력 있게 펼쳐서 독자들이 공감하면 그것이 곧 저서다. 내가 저자가 되는 것이다.

일곱 번째는 장서(藏書)를 들었다.

장서는 책을 보관한다는 뜻이다. 책을 잘 간수해서 찾기 쉽게 배열하고 낡아서 해진 책은 새로 묶고 표지를 바꾼다. 어떤 사람은 책을 구하면 장서인부터 먼저 찍었다. 붉은 인주로 책의 첫 면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인장을 찍는 순간 그 책은 비로소 자신의 소유물이 되었다.

여덟 번째는 차서(借書)다.

차서는 남에게 책을 빌리는 것이다. 책값은 그때나 지금이나 꽤 비싸서 읽고 싶은 책이 많아도 모두 손에 넣을 수가 없다. 이덕무는 집이 몹시 가난했기 때문에 책 살 돈이 늘 귀했다. 누가 귀한 책을 가지고 있다는 말만 들으면 그에게 찾아가 책을 빌려왔다. 주인이 책을 빌려주지 않으면 빌려 줄 때까지 사정했다. 어떤 때는 아예 책을 한 권 더 베껴 써주는 조건으로 빌려오기도 했다.

아홉 번째는 포서(曝書)다.

포서는 책에 햇볕을 쬐어 말리는 일을 말한다. 봄가을로 햇볕이 짙은 날에 옛사람들은 서재 속에서 습기를 머금어 눅눅해진 책들을 마당에 일제히 널어놓고 시원한 바람에 먼지를 털고 책을 말렸다. 한지는 질기고 오래가지만 방안에 환기가 잘되지 않아서 습기를 잔뜩 머금으면 곰팡이가 피고 좀벌레가 생긴다.

(나)

(1) 듣자니 최석정(1646~1715)은 장서가 대단히 풍부했다. 하지만 어느 책에도 장서인을 찍지 않았다.

한번 남에게 책을 빌려주면 다시 찾는 법도 없었다. 매번 자제들에게 이렇게 훈계하곤 했다.

① “서적이란 공공의 물건이니 사사로이 지키기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마침 책을 모을 힘이 있었기에 책이 내게 모인 것이고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다.” 『예기』나 『좌전』 같은 책을 선록하여 분류할 때도 판본에서 잘라다가 구절과 행을 나란히 배열해서 베껴 쓰는 일을 대신케 했다. 자기 책인지 남의 책인지도 따지지 않았다.

(2) 흰 책벌레 한 마리가 내 『이소경離騷經』에서 추국秋菊, 목란木蘭, 강리江籬, 게거揭車 등의 글자를 갹아먹었다. 내가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서 잡아 죽이려 했었다. 조금 지나자 능히 향초 이름만 골라서 갹아먹은 것이 신통했다. 그 기이한 향기가 머리와 수염에 넘쳐나는지 살펴보고 싶어서 아이를 사서 만나절을 운통 뒤졌다. 홀연 책벌레 한 마리가 꿈틀꿈틀 기어 나왔다. 손으로 이를 덮었는데 빠르기가 흐르는 물과 같아 달아나버렸다. 단지 은빛 가루만 번쩍이며 종이에 떨어졌을 뿐 책벌레는 끝내 나를 저버리고 말았다.

(3) 무릇 서화는 마땅히 매우梅雨가 오기 전에 아주 건조하게 말려둬야 한다. 글씨는 靨櫃에 넣어 종지로 靨와 靨의 틈새를 두껍게 발라 바람이 통하지 않게 하고, 봄 장마철이 지난 뒤에 열면 습기가 스미지 않는다. 대개 습기는 공기가 밖에서 들어와 생긴다. 옛사람은 서화를 보관할 때 흔히 운향薰香을 써서 좀벌레를 쫓았다. 사향麝香도 좋는데 장뇌樟腦를 사용해도 괜찮다고 한다.

(4) 내가 비록 학자는 아니지만 매번 『근사록』을 애중해서 늘 가까이 두고 밤낮 서너 항목씩 보며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곤 한다오. 실로 잠깐 사이라도 내 손을 벗어나게 하고 싶지가 않구려. 하지만 그대가 청하는 것이니 어찌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겠소. 여기 아홉 책을 삼가 보내드리오. 이것을 보내고 나면 눈앞에 두고 볼 책이 없으니 『원문류元文類』와 『송시초宋詩抄』 두 부중에 하나라도 빌려주는 것이 어떻겠소.

(5) 책은 눈으로 볼 때와 손으로 쓸 때가 확연히 다르다. 손으로 또박또박 베껴 쓰면 또박또박 내 것이 된다. 눈으로 대충대충 스쳐보는 것은 말달리며 하는 꽃구경일 뿐이다. 베껴 쓰면 쓰는 동안에 생각이 일어난다. 덮어놓고 베껴 쓰지 않고 베껴 쓸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먼저 저울질해야 하니 이 과정이 또 중요하다. 베껴 쓰기는 기억의 창고에 좀 더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한

위력적인 방법이다. 또 베껴 쓴 증거물이 남아 끊임없이 그때의 시간으로 되돌아가게 해주는 작성 효과가 있다.

(다)

(1) 한가한 꽃 혼자 지고 예쁜 새들 지저귀니
소롯한 맑은 그늘 푸른 시내 돌아간다.
앉아 졸다 가다 읊다 때로 시구 얻어도
산중이라 붓이 없어 적을 길이 없구나.

(2) 불펜 없이 하루를 지내 본 적이 있는가? 견뎌 본 적이 있는가? 처음 내가 불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 건 서울에서 온양으로 가는 기차 속에서였다. 무슨 생각이 떠올라 그걸 적어 두려고 찾았으나 없었다. 난감했다. 옆의 사람에게 빌릴 수도 있었겠지만 문득 나는 그 난감을 즐기기로 했다. 그 생각이 지워질까 끝내 기억될까를 생각하는 순간에도 그 생각은 자꾸 남아 갔겠지만 나는 재빨리 몸을 세웠다. 오, 재미있는 줄다리기! 지워짐 쪽으로, 기억 쪽으로, 당기고 놓아 주기! 내가 힘이었다. 그 맛이 괜찮았다. 탱탱했다. 나의 하루가 탱탱했다.

20. (나)의 글에서 (가)의 독서 활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점)

- ① (1)
- ② (2)
- ③ (3)
- ④ (4)
- ⑤ (5)

주관식 6. (나)의 글에서 밑줄친 부분, ① “서적이란 공공의 물건이니 사사로이 지키기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마침 책을 모을 힘이 있었기에 책이 내게 모인 것이고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다.”와 가장 관련이 있는 독서 활동을 (가)에서 찾아 적으시오. (3점)

답: _____

21. 위의 (다)의 두 글, (1)과 (2)를 (가)의 독서 활동과 연결 지어 생각할 때, 가장 적합한 것은? (3점)

- ① 좋은 글을 여러 번 소리 내서 읽으면 말의 가락이 살아나서 울림이 더 깊어진다.
- ② 책을 왜 읽는지 목표를 정하고 어떤 내용을 간추릴지 미리 생각한 후 공책을 펴놓고 붓을 든 채 책을 읽었다.

- ③ 책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나오면 이를 바로잡고 여백에 메모를 남긴다.
- ④ 읽다가 궁금하거나 의문이 생기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관련 자료를 뒤져서 내용을 확인한다.
- ⑤ 책을 읽고 나서 책의 인상적인 부분이나 책 전체에 대한 감상과 평을 남기는 일이다.

※ 다음은 [판소리의 예술적 기법에 관한 글]이다. (라)를 읽고 묻는 말에 답하시오.

(라)

뿐만 아니라 판소리 광대들은 담담한 대목은 담담하게, 씩씩한 대목은 씩씩하게, 슬픈 대목은 슬프게 부를 줄 아는 소리꾼이었다. 다양한 창법을 개발해 두었던 것이다. 평조, 우조, 계면조가 그것이다. 화평하게 불러야 할 대목에서는 ‘평조’로, 씩씩하고 장엄하게 불러야 할 대목에서는 ‘우조’로, 슬프고도 애절하게 불러야 할 대목에서는 ‘계면조’로 불렀던 것이다. 심청이 인당수로 죽으러 가는 대목은 (①)로 불러야 제격이고, 이 도령이 광한루에 올라가 사면의 아름다운 경치를 노래하는 대목은 (②)로 불러야 제격이다. 판소리 광대는 슬픈 대목에 이르면 애절한 창법으로 청중의 마음까지 빠져리게 만들어 놓았고, 화사한 대목에 이르면 장중한 창법으로 청중을 편안하게 만들어 놓았다.

내용과 창법이 적절하게 어우러지는 것은 물론 장단도 거기에 맞게 구성하였다. 가장 빠른 장단인 ‘휘모리’부터 시작하여 ‘자진모리’, ‘중중모리’, ‘중모리’, ‘진양조’ 등 빠르고 느린 장단으로 속도를 조절해 가며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흥겹고 신나는 대목은 휘모리나 자진모리로 부르고, 슬프고 처량한 대목은 중모리나 진양조로 불렀다. 그 가운데 진양조의 개발은 판소리 장단의 신기원을 이룩한 일대 사건으로 평가된다. 판소리 광대가 애절한 정서를 표현하는 데 있어, 가장 느린 진양조보다 효과적인 장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진양조는 송홍록의 매부인 김성옥 명창이 개발하였다고 전해진다. 김성옥은 무릎이 아프고 다리 살이 여위어 마치 학의 다리처럼 가늘어지는 병에 걸려 있었다. 학살풍이었다. 그렇게 앓은뱅이 신세로 지내다가 결국 서른 살의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다. 김성옥이 병석에 누워 있던 어느 날, 송홍록이 집으로 문병을 갔다. 송홍록은 판소리 명창답게 예사말로 안부를 묻지 않고, 중모리장단에 얹어 물었다.

“그래~ 병세가~ 좀~ 어떠한가~ 과히~ 외롭지~ 않은가.”

그러자 김성옥도 자리에 누워 판소리 명창답게 장단에 얹어 대답했다.

“너~무~나~ 아~프~고~ 외~로~워~ 인~생~의~ 비~애~가~ 끝~없~다~네.”

송홍록이 부른 중모리보다 훨씬 애절하고 느린 장단이었다. 그때 그들은 문득 깨달았다. 극도로 비장한 대목은 중모리보다 훨씬 느린 진양조 장단으로 불러야 한다는 것을. 물론 그때 그들은 그걸 (③)로 불러야 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주관식 7. (라) 글의 저자는 판소리의 예술적 기법으로 창법과 장단을 설명하고 있다. 본문에서 밑줄 친 부분을 참고하여 괄호 ①, ②, ③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본문에서 찾아서 적으시오. (3점 - 각 1점)

답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22~25】 아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도(道)를 ①도(道)라 할 수 있으면 변함없는 절대적인 ②도(道)가 아니다. 이름은 부를 수 있으면 변함없는 절대적인 이름이 아니다. 무는 하늘과 땅의 시작을 일컫는다. 유는 만물의 어머니를 일컫는다. 그러므로 항상 없음은 그 오묘함을 보고자 함이다. 항상 있음은 그 끝을 보고자 함이다. 이 둘은 같은 곳에서 나왔으나 이름이 다르니 모두 ③현(玄)하다 이른다. 오묘하고 또 오묘하니 만물의 오묘함의 문이로다.

道可①道, 非常②道, 名可名, 非常名, 無, 名天地之始. 有, 名萬物之母. 故常無, 欲以觀其妙. 常有, 欲以觀其微. 此兩者, 同出而異名, 同謂之③玄. 玄之又玄, 衆妙之門.

(나) 지금 있는 손가락으로 그 손가락이 진짜 손가락(개념으로서 손가락)이 아님을 설명하는 일은, 지금 있는 손가락이 아닌(그것을 초월한 일반적인) 것으로 설명함만 못하다. 지금 있는 말(馬)로 그 말이 진짜 말(개념으로서의 말)이 아님을 설명하는 짓은, 지금 있는 말이 아닌(그것을 초월한 일반적인) 것으로 설명함만 못하다. 천지도 하나의 손가락이고 만물도 한 마리의 말이다. 자기가 좋은 것을 좋다 하고, 자기가 싫은 것은 좋지 않다고 하게 된다. ①길(道)이란 그곳을

다니니까 생기게 마련이고, 사물은 이름을 붙이니까 그렇게 된다. 어째서 그렇게 여기게 될까? 그렇게 여겨지는 모습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어째서 그렇지 않다고 여기게 될까?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 모습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 사물에는 본래 그래야 할 것이 갖추어져 있고, 또 본래 좋다고 할 만한 데가 있어서 어떤 사물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 없고 좋지 않은 데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작은 풀줄기와 큰 기둥, 문둥병 환자와 미인 서시(西施)를 대조해 보인다면, 매우 괴이하고 야릇한 대조이지만 참된 ②도(道)의 입장에서는 다 같이 하나가 된다. 한쪽에서의 분산(分散)은 다른 쪽에서의 완성이며, 한쪽에서의 완성은 다른 쪽에서의 파괴이다. 모든 사물은 완성이건 파괴건 다 같이 하나이다. 다만 도에 다다른 자만이 다 같이 하나임을 깨달아, 자기의 판단을 내세우지 않고 사물을 평상시의 자연스런 상태 속에 맡겨 둔다.

(가)는 노자 <도덕경>의 첫 구절이다. 이 구절은 두 개의 명사, 도(道)와 명(名)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덕경> 81장 전편의 맥락을 이어주고 관통하는 실마리이다.

(나)는 <장자> 제물론의 한 구절이다. 여기서도 도(道)와 명(名)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노자의 생각과 일맥상통한다.

22. ①도(道)의 범주에 들지 않는 것은? (3점)

- ① 형이상학
- ② 도로
- ③ 규율 및 법규
- ④ 허무주의
- ⑤ 국가의 제도

23. ②도(道)는 ①도(道)의 발전적 개념이다. ②도(道)의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3점)

- ① 인위적 행함이 없다.
- ② 끝없이 아름답다.
- ③ 이름이 없다.
- ④ 자연을 본받는다.
- ⑤ 완성이자 파괴이다.

24. (나)에서 손가락에 관한 장자의 논지에 부합되지 않는 생각은? (3점)

- ① 이것과 저것을 구별함으로써 진실을 밝힐 수 있다.
- ② 말(馬)은 인간이 '말'이라고 이름 지었기 때문에 '말'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 ③ 말(馬)을 소라고 부르더라도 말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 ④ 상대적인 것을 초월한 절대의 경지에서 가치가 결정된다.
- ⑤ 세상 사람들은 주관에 따라 자기에게 좋은 것을 좋다고 판정한다.

25. ③현(玄)은 상형문자로서 하나의 고리가 또 하나의 고리와 이어져 있어서 앞뒤가 서로 원인과 결과가 되고 서로 인과 연이 되는 무궁무진함을 의미하는 글자이다. 다음 중 현(玄)은 어느 것인가? (3점)

- ① 주관
- ② 피비우스의 띠
- ③ 염주
- ④ 주사위
- ⑤ 반지

*확인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답안지, 문제지를 함께 제출하십시오. 답안지는 오른쪽에 문제지는 왼쪽에 놓으시오.